

제6장 공원 · 녹지

1. 현황 및 여건변화

가. 광양시 공원·녹지 현황

- 현재 광양시의 도시관리계획상 공원결정 면적은 10.856km²로 생활권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146개소에 9.090km², 주제공원(체육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이 19개소에 1.765km²가 결정되어 있음
- 2013년 인구 151,621인 기준 1인당 공원면적은 71.6m²로 법정 기준치인 6m²를 상회하나, 공원의 조성률이 낮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미약한 실정임
- 공원시설의 변화추이를 보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통하여 대폭 증가된 양상을 보임

< 표III- 73 > 광양시 도시공원 결정 현황

(단위 : km)

구분	합계		광양 중생활권		중마 중생활권		항길 중생활권		수어섬진 농촌정주 중생활권		백운 농촌정주 중생활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65	10.856	68	3.357	62	5.551	19	1.676	15	0.219	1	0.053
근린공원	44	8.840	14	2.221	15	4.962	11	1.528	4	0.128	-	-
어린이공원	73	0.162	37	0.097	31	0.057	5	0.008	-	-	-	-
소공원	29	0.088	12	0.023	7	0.034	1	0.009	9	0.022	-	-
체육공원	6	0.409	-	-	5	0.357	-	-	1	0.052	-	-
수변공원	6	0.175	-	-	4	0.140	1	0.018	1	0.017	-	-
역사공원	5	0.793	4	0.740	-	-	-	-	-	-	1	0.053
문화공원	2	0.388	1	0.276	-	-	1	0.112	-	-	-	-

자료 : 광양시 도시과 내부자료(2016.6 기준)

< 표III- 74 > 1인당 공원면적

인구(명)	공원면적(km ²)	1인당공원면적(m ²)
151,621	10.856	71.6

나. 문제점 및 여건변화

■ 공원녹지 네트워크 단절

- 백운산을 중심으로 북측에 산림자원 및 4대계곡 등 양호한 자연환경 요소가 산재해 있음
 - 4대 계곡 : 성불계곡(봉강면), 동곡계곡(옥룡면), 어치계곡(진상면), 금천계곡(다압면)
- 주요 거점녹지와 자연자원 간의 연계체계가 미흡하며, 분절적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음

■ 공원·녹지 수요 및 요구 증대

-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해 구도심 지역의 공원·녹지 수요 증대
- 여가시간 증가로 레크레이션 등의 활동 장소로서 공원녹지 수요 증대

■ 삶의 질 제고와 생태도시 실현에 대한 요구 증대

-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역사와 전통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확산되고 있음
- 다양한 문화활동과 연계된 녹지환경의 창출 및 생태도시 실현의지 증대

■ 생태하천에 대한 관심과 복합 수변공간 수요 증대

- 자연생태환경의 조성 및 유지·복원에 대한 관심 증가
- 수변공간의 다기능 이용 및 활용성 증대
 - 도심지역 :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
 - 교외지역 : 천변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조망시설, 휴식시설 등 조성
 - 수변도시 : 재생 및 도시계획과 연계된 수변공간 통합 디자인

■ 관리·행정상의 문제

- 공원지정시 보상민원의 발생으로 신규 공원지정이 어려워 신규 근린공원의 대부분이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지역에 의해 확보
- 도시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재원의 부족 및 과도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미조성공원이 산재
- 장기 미집행시설인 공원·유원지·녹지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및 비용 확보 방안의 부재
- 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유원지·녹지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책 마련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의해 장기미집행시설은 20년이 지난 시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해제)